

뉴스레터 (58호) 2026년 6월

# 진실의힘 NEWSLETTER

진실의힘 

6.3지방선거의 결과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위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청년은 왜 진보에 등을 돌렸나?”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진실의 힘은 이 문제의식으로 박태훈 씨의 글을 실습니다. 박태훈 씨는 이 글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분노의 원인을 탐색하고, 정치의 판이 바뀌었는데 대응은 그대로인 현실을 진단합니다. 청년이 마주한 불안과 분배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 두루 살핀 글입니다. 박태훈 씨는 내란의 밤, 국회로 달려간 ‘12.3시민’으로 진실의 힘이 진행한 [123 내란 시민기록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진보당의 청년조직인 청년진보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 일베 폐쇄 11만 서명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와 피렌체의 식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2.3시민의 생각]

우리는 좋은 끈대가 될 의무가 있다



박태훈(청년진보당)

서울 선거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결과는 구청장이다. 같은 서울에서 민주당은 25곳 중 17곳에서 구청장을 이겼다. 정원오가 51~54%에 머문 자치구에서 같은 당 구청장 후보는 1만~2만 표를 더 받았다. 노원·중랑·성북·강서에서는 국힘 구청장 후보가 오세훈보다 1만 4천~1만 5천 표씩 덜 받았다. 이 네 구에서만 약 3만 명이 '시장은 오세훈, 구청장은 민주당'으로 표를 갈랐다. 용산은 더 극적이다. 시장은 오세훈이 17%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구청장은 국힘이 6%포인트 차 신승이었다.

'20·30이 극우화됐다', '청년이 민주당을 떠났다'는 납작한 진단으로는 이 분리 투표를 설명할 수 없다. 청년을 포함한 서울 시민은 구청장 인물 검증에서 민주당을 신뢰했고 시장에서 거부했다. 서울 시장에 기대하는 어떤 문턱에서 정원오가 떨어진 것이다. 진단이 두루뭉실하면 처방이 어긋난다.

출구조사는 세 가지 신호를 준다. 첫째,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성 75.3%가 오세훈을 찍었다. 70대 보수 결집 71%를 넘는다. 한 세대·성별 집단이 반대 진영에 75%를 몰아준 건 흔치 않다. 이 탈이 아니라 단층이다. 둘째, 30대 여성 53.6%가 오세훈을 찍었다. 정원오는 42.8%, 격차 10.8% 포인트다. '20·30 남성은 보수, 20·30 여성은 진보'라는 젠더 이분법으로 청년을 읽던 시대가 흔들린다. 셋째, 텃밭의 분리 투표다. 40·50이 가장 두꺼운 지역에서 민주당 시장 후보가 같은 당 구청장의 표를 흡수하지 못했다. 청년 보수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수도권 청년과 지방 청년을 하나로 묶는 것도 문제다. 수도권 청년은 초경쟁 사회에서 한정된 몫을 두고 싸우고, 젠더는 그 다툼의 가장 선명한 전선이다. 지방 청년은 일자리와 미래가 빠져나가며 파

이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 강한 지도자상을 열망한다. 대구에서 홍준표 팬덤을 추경호가 흡수하지 못하고 김부겸이 흡수한 것이 그 증거다. 표심의 모양은 비슷해도 동기가 다르니 처방도 달라야 한다. 젠더 갈등은 청년 분노의 원인이 아니라 표현형이다. 뿌리는 자원 배분의 불안, 자산 사다리의 박탈, 분배 질서에 대한 신뢰 붕괴다.

청년이 분노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먼저 FOMO다. 10년 전 2~3억 하던 노원·도봉·강북 국민주택 평형이 지금 15억이다. 코스피 8천 시대가 와도 종잣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청년은 자기 임금 곡선으로 자산 곡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매일 확인한다. 그리고 사다리를 걷어찬 세력이 민주당과 그 지지층 40·50이라고 체감한다. 이 체감 위에서 '민주당은 임대주택만 좋아한다, 청년을 영원한 세입자로 묶는다'는 보수의 선전이 귀에 꽂힌다. 정책이 나빠서가 아니라 발신자를 믿지 못해서 달지 않는다.

다음은 계층 상승의 꿈이다. 지금의 청년이 원하는 건 위로금이나 임대주택이 아니다. '역사의 주인', '경제적 자유', '우리도 기득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다. 이 욕망은 86세대에 대한 반발과 한 짝이다. 청년 눈에 86세대는 민주화 운동과 정치 권력과 부동산 자산을 한꺼번에 가져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동체·연대·분배·정의라는 말을 기득권의 언어로 듣는다. **공공임대 확대는 '평생 세입자로 살아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무임승차'로, 초과이윤 배당은 '주식 안 하는 사람에게 내 배당을 떼어준다'로 번역된다.** 객관적으로 청년은 분배의 수혜자다. 그러나 사람은 객관적 이익이 아니라 주관적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표심도 그 욕망을 따라간다.

마지막은 기득권의 위선이다. 청년이 조국과 유시민에게 강한 거부감을 보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가 봐도 사회 상위계층인 이들이 여전히 자신을 약자로, 투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가 충격이었던 건 입시비리 의혹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진보=약자'라는 자의식의 허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른의 부재가 겹친다. 지금의 10·20 남성은 삶에서 제대로 된 어른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다. 산업화 세대의 강한 마초는 시대착오적이어도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한다고 느끼고, 민주화 세대의 부드러운 어른은 평등을 말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느낀다. 청년 남성에게 후자의 부드러움은 비겁함으로 읽힌다. 그래서 시대착오적인 줄 알면서도 강한 아버지 모델을 찾는다. 민주당이 잃

은 것이 바로 이 어른의 자리다.

게임판도 바뀌었다. 오늘날 정치 논쟁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해석 경쟁이다. 코스피 8천 시대가 와도 청년 남성 공론장의 반응은 '고환율은?', '반도체 빼면 4,100인데?'였다. 사실을 평가하기 전에 해석 방향이 정해진다. 2017년 미국과 2021년 NATO가 인지전을 여섯 번째 전장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이유다. 적의 영토가 아니라 국민의 판단력과 사회적 신뢰를 공격하는 시대다. '일베'는 이제 하나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완결된 세계관이다. 5·18을 폭동으로 재서사화하고, 호남·여성·진보를 노력 없이 권리를 누리는 자로 본다. 이 세계관은 밈과 짤과 고정 서사의 반복 노출로 학습되고, 알고리즘이 그 반복을 자동화한다. 무서운 건 정치보다 문화를 먼저 장악한다는 점이다. 게임, 웹툰, 힙합, 아이돌 커뮤니티, 쇼츠 안에서 '좌빨', 'PC충' 같은 낙인이 놀이가 된다. 민주·진보가 '지역 카톡방에 몇 명 모았다'로 성과를 재는 동안 반대편은 온오프라인 인지전에 화력을 집중한다.

미뤄둔 30대 여성 이야기를 해야 한다. 53.6%가 오세훈을 찍었다는 건 '이대녀=진보'라는 가정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30대 여성은 20대 여성보다 보수가 더 강하게 결집했다. 청년 여성의 보수화는 나이를 먹을수록 강해진다. 30대 여성은 결혼·출산·돌봄·주거·경력단절이 한꺼번에 부딪히는 세대다. 자가 진입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한다. 민주 진영은 공공임대를 내밀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가 진입이었다. 돌봄 국가책임제는 옳은 방향이었지만 경력·자산 문제를 직접 풀어주지 못했다. 청년 여성을 진보의 보루로 동원하면서 정작 그들의 생애 좌표에는 답이 미흡했다. 남성 청년 보수화 대 여성 청년 진보 잔류라는 이분법은 끝낼 때다. 청년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분배 문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진단이다. 처방의 첫 원칙은 청년 안에서 도려낼 것과 끌어안을 것을 분리하는 일이다. 반민주당 정서는 한 덩어리가 아니다. 핵심층은 혐오를 기반으로 한다. 일베적 세계관을 체화하고 5·18을 왜곡하고 '윤 어게인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을 생산한다. 인천 계양에서 김현태 13%, 평택에서 황교안 6%가 그 표심이다. 그러나 다수는 그 혐오를 빌려 쓰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동기는 혐오가 아니라



분배 불안과 위선에 대한 환멸이다. 골수를 놔두면 다수가 끌려가고, 다수를 극우 취급하면 반발만 커진다. 분리해서 대처해야 한다.

골수에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단 익명 개인 처벌이 아니라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의 발화에 더 높은 책임을 묻는 설계가 핵심이다. 같은 표현이라도 익명 게시판과 구독자 100만 채널에서 발화될 때 무게가 다르다. 독일의 NetzDG는 대형 SNS에 불법 게시물 삭제 의무를 지웠고 최소 25개국에 유사 모델을 채택했다. 다만 과잉 삭제와 표현 위축이라는 비판이 분명하니, 한국에 적용한다면 삭제 의무와 이의·구제 절차를 한 쌍으로 설계해야 한다. 반복 노출로 학습되는 세계관을 멈추려면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화도 필요하다.

인지전 대응은 더 신중해야 한다. '청년의 미디어 이해력을 높여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댓글공작과 블랙리스트의 그림자가 남은 한국에서 국가가 인지전에 나선다는 건 검열과 통제로 읽힌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제도로 못박고 출발해야 한다. 알고리즘과 딥페이크와 해외 정보작전에 대한 기술적 대응, 시민의 판별을 돕는 공공 인프라, 과거 국가 권력의 여론 개입에 대한 기록과 검증까지가 그 일이다. 반대로 특정 콘텐츠·인물·진영에 대한 직접 통제, 무엇을 믿으라는 발화, 허위 여부의 직접 판정은 하면 안 된다. 허위 판정은 사법부와 독립 팩트체크 기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맡겨야 한다. 컨트롤 타워의 임무는 청년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 자체를 지키는 일이지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는 일이 아니다. 권한 설계, 독립 감사, 초당적 거버넌스, 일몰 조항을 한 묶음으로 박고 시작해야 한다.



도려낼 것을 정했으면 나머지는 끌어안아야 한다. 혐오 서사가 청년의 마음에 꽂히는 이유는 그것이 분배 불안을 정확히 건드리기 때문이다. 분배 불안을 풀지 않으면 혐오의 수요가 줄지 않고, 수요가 그대로면 어떤 규제도 풍선효과로 다시 피어난다. 청년 주거·고용·분배의 안정은 그래서 혐오 대응의 예방책이다.

구체적으로 셋이다. 첫째, **살 만한 임대주택**이다. 지금의 공공임대는 좁고,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나

가야 한다. 그러니 임대는 거쳐 가는 곳이 되고 안정의 통로는 자가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오래 거주할 수 있고 소득이 늘어도 쫓겨나지 않으며 가족이 함께 살 면적의 공공임대를 수도권에 대량 공급하면 집값 압력도 풀린다. **둘째, 지방 청년에게는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일자리만이 아니라 함께 어울릴 사람과 머물 이유가 있어야 한다. 청년 창업·문화·산업 거점을 광역 단위가 아니라 청년이 실제로 먹고 자고 출퇴근하는 생활권 단위로 설계해야 한다. **셋째, 불안정 노동을 개혁해야 한다.** 2024년 8월 2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43.1%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고 정규직은 처음으로 20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 불안정이 혐오 서사가 자라는 토양이다. 플랫폼 노동·프리랜서·계약직 청년의 사회보험·교섭권·최저소득 보장은 진보의 본질이다.

**마지막으로 시가 몰고 올 산업 전환이다.** 생산성이 폭발하는 만큼 그 과실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다음 십 년의 분배를 결정한다. 가만히 두면 과실은 자본과 플랫폼에 쏠리고 청년은 또 불안정 노동으로 밀려난다. 농지개혁이 경자유전으로 땅의 소출을 경작자에게 돌렸듯, AI 시대에는 노동을 중심으로 둔 전환 설계가 필요하다. 전환기 소득 보장, 재교육,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이득의 사회적 배분을 묶어 개인이 격랑을 홀로 떠안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진보가 선점해야 할 다음 의제다.

끌어안았다면 미래를 그릴 때다. 욕망에 응답하는 일은 신뢰의 시작이지 진보의 목표가 아니다. 그 입구에 머물면 진보는 영원히 2등 보수가 된다. 모두가 강남에 살고 모두가 삼성전자 대주주가 될 수는 없다. 누군가 위로 가려면 누군가는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게 자산 시장의 산수다. 보수가 청년에게 약속하는 자유는 실은 자본의 위험을 청년 개인이 떠안는 자유다. 한국 개인투자자 다수가 시장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자본이득이 상위 10%에 집중된다는 통계는 이미 다 있다. 진보가 청년의 귀에 닿게 정치적으로 번역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좋은 삶을 제시해야 한다. 욕망과 싸우려면 대체할 욕망이 있어야 한다. 자가와 코스피로 도달하는 자유가 아니라 시간의 자유다. 주 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회복되는 저녁과 주말, 공공의료와 부담 없는 돌봄, 공원과 도서관과 양질의 임대주거로 사적 자산 없이 가능해지는 좋은 일상. 북유럽과 일부 유럽에서 이미 작동하는 그림이다. 다만 정치인이 나르면 위선으로 보인다. 사상전은 다큐멘터리와 웹툰과 영화와 유튜브, 청년이 신뢰하는 '형'들의 말을 통해 세련되게 해야 한다. 보수가 청년의 욕망을 유튜브와 남초 커뮤니티와 학원 강사의 입으로 설계했다면, 진보의 사상전도 제도 바깥 문화 영역에서 시작하자. 인지전이 방어라면 사상전은 공세다. 결실은 다음다음 선거에야 보이겠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청년이 떠난 것이 아니다. 정원오가 낙선한 옆에서 민주당 구청장 17명이 압승했다. 다만 20대 남성 75.3%와 30대 여성 53.6%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균열이 이미 깊다는 신호다. 가만히 있으면 5년, 10년 뒤가 어둡다. 처방은 셋이다. 영향력자 혐오 발화와 알고리즘을 겨누는 비대칭 규제로 도려내고, 분배 불안을 푸는 안전망과 사다리로 끌어안고, 욕망의 풍경에 균열을 내는 사상전으로 다시 그린다. 하나도 빠면 안 된다. 도려내기만 하면 반발만 커지고, 끌어안기만 하면 보수의 자장에 머물고, 미래를 제시하다 이루지 못하면 또 한 번의 위선이 된다. 셋이 같이 가야 한다. 강한 끈대의 세대를 넘어, 끈대가 되지 않으려 한 세대를 지나, 우리는 좋은 끈대가 될 의무가 있다.



사진. 허란

전문보기: <http://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23>

진실의 힘과 「전후 극우의 트랜스내셔널 재영토화」 공동연구팀은 ‘극우 연속강좌’ 총 8강을 준비했습니다. 강좌는 5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격주 수요일(저녁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강이 진행되었으며, 4강은 6월24일 열립니다.

참가자들이 보내주신 후기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시각과 생각이 담긴 리뷰를 통해 강좌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강부터 8강까지 남은 강의를 신청해 주시고 후기와 자유로운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1] 『극우 연속강좌』 1강

### 21세기 우리 주변의 극우를 직시하다



김현아(디지털 크리에이터)

‘지난 13일 저녁, ‘진실의 힘’에서 마련한 김용우 강사님의 강연 <극우의 귀환, 21세기 극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강좌는 <극우의 부상,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주제로 8월까지 총 8강으로 진행되는 강좌 전체를 아우르는 대망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파시즘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며 명확하게 규정하고 21세기 극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담은 강좌였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다소 막연하게 느껴졌던 '극우'라는 단어가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이 현상에 주목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연 시작 전, 정성껏 준비된 다과와 함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입장이 진행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통영과 부천 등 원거리에서 찾아주신 분들의 모습에서 이번 강좌에 대한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진행자 송소연 이사님이 참석자들을 서로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는데, 덕분에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시민들 사이에 훈훈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제1강을 맡아주신 김용우 강사님은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로, 파시즘의 변용과 전후 극우 정치운동을 오랜 시간 연구해 오셨습니다. 최근에는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에서 파시즘을 분석하고 에코-파시즘에 관심을 가지며 현대적인 맥락에서 파시즘을 해석하는 데 매진하고 계십니다.

강사님은 '또다시 파시즘?'이라는 화두를 던지시며, 현대 극우의 지형을 정확히 읽어내는 '지도 그리기'로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파시즘(Fascism)의 뿌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흔히 파시즘 하면 독재자의 광기 어린 폭력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파시즘은 민족을 하나의 살아있는 '어머니의 몸(유기체)'으로 보고 그 몸에 침투한 '병원(유대인 등)'을 제거해 개조하고자 했던 일종의 혁명적 이데올로기였고, 그 논리로 인해 필연적인 폭력성을 띠게 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새로운 독일인 만들기' 등에서 보여주듯, 완벽한 새로운 인간형을 주조하려 했던 과거의 파시즘은 몰락 이후 오늘날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극우는 노골적인 인종주의 대신 문화적 다원주의를 거부하는 '대교체론' 등을 내세우며 한층 교묘해진 방식으로 대중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디지털 혁명, 인류세의 위기가 대두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극우의 흐름을 훑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vs 민주주의'의 대립 구도 속에서 등장한 현대 극우의 흐름이자, 이번 강연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던 대목은 '신반동주의(Neo-Reaction)' 혹은 '기업-군주제(Corporate Monarchism)' 모델이었습니다. 피터 틸이나 커티스 야빈(하버드 매거진 등에서 민주주의에 관해 논쟁을 벌인 인물) 등이 주장하는 이 흐름은 국가를 민주적인 토론의 장이 아니라, 마치 효율적인 스타트업이나 기업처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지휘계통, 논리적 공정, 그리고 단일한 사명을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복잡한 절차를 비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취급하며 강력한

의사 결정권을 가진 CEO(군주)와 같은 존재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여기서 국민은 권리를 가진 시민이 아니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으로 치환됩니다. 경제적 효율성만 극대화된 체제를 지향하는 이들의 시각은 현대 기술 권력이 가져올 수 있는 섬뜩한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연의 핵심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님은 우리가 마주한 '이것이 파시즘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냉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극우파를 '역사적 파시즘'의 렌즈로 보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에만 갇히면 오히려 오늘날의 '새로운 현실'이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시즘이나 신종 파시즘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지금 당장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그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결국 한국의 극우파 역시 단순한 과거의 파시즘 프레임보다는 '글로벌 극우의 맥락'에서 접근해야만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왜곡 없이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강사님은 상황이 비록 비관적일지라도 여전히 대안은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많은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씀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결국 위기를 넘어서는 힘은 기술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철저한 직시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인문학적 성찰과 실천에 있다는 희망 섞인 숙제를 안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강연장은 쉬는 시간조차 필요 없을 만큼 질문이 쏟아지는 열띤 분위기였습니다. 강사님은 과거의 이론들을 떠나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연결된 살아있는 지도로 그려주셨고,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답변으로 시간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이번에 하나하나 하지 못한 깊은 이야기들은, 8월까지 이어지는 다음 강좌들에서 여러 주제로 더 자세히 다뤄질 예정입니다. 풍성한 다과와 함께 더 알찬 배움과 성찰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 극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파시즘’ 개념의 활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정운(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 졸업)

12·3 비상계엄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환상에 가까웠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이후 각양각색의 응원봉과 깃발들로 상징되는 역동적인 광장정치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현시하였다. 하지만 ‘지금, 여기’ 광장의 열기와 사회대개혁을 향한 목소리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광장 이후 우리가 마주한 것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예비되었던 극우정치의 전면적 부상이다.

극우 자체가 전적으로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극우적인 것’은 건국 초기부터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서 존속해왔다. 그렇지만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주도 세력과 계엄을 정당화했던 국민의힘, 곧 극우 엘리트 정치세력에 의한 ‘위에서부터의’ 극우정치와, 서부지법 폭동과 탄핵 반대 집회로부터 대표되는 ‘아래로부터의’ 극우정치가 마주치며 일으킨 불길이다. 기실 극우 문제는 이러한 ‘위’와 ‘아래’의 수직적 유비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극우 개신교, 극우 유튜브, 극우화된 청년 세대 등, 극우정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아우르고 있으며, 심지어는 노조나 사회 복지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과 같은 형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교묘히 작동하고 있

다. 이른바 극우 정치 및 정동의 일상화라고 불릴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극우 정치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기는커녕, 일상화되어 교묘하게 작동하는 극우정치에 대해 어떻게 투쟁의 구도와 전략을 잡아가야 할지조차 헤매고 있는 형국이다. 윤석열의 탄핵이 곧바로 극우적인 것의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윤석열과 계엄은 극우정치의 ‘원인’이 아니라 그 기반에서 배태된 ‘결과’라는 것을 뼈아프게 실감케 하는 계엄 이후의 정세이다.

이번에 진실의 힘과 「전후 극우의 트랜스내셔널 재영토화」 공동연구팀이 기획한 <극우의 부상, 민주주의의 미래> 연속강좌가 유독 반갑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2026년 5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1세기 극우 정치의 재편과 민주주의 위기를 분석하고 미래를 조망한다는 기획은 현 정세에 대한 시의적절한 응답처럼 느껴졌다. 첫 강의는 기초강연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오랫동안 파시즘 문제를 연구해 오신 김용우 선생님께서는 이후 강연을 듣는 데 필요한 ‘지도’를 그려주셨다. 선생님의 강연 전체를 관통했던 것은 현 극우를 파시즘이라는 렌즈로 보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강연 내용을 경유해보자. 파시즘은 “민족의 유기체적 성격에 대한 믿음으로, 민족의 재생 혹은 민족이 쇠락한 상태에서 부활한다는 전망에 대한 광적인 헌신”을 골자로 하는 이데올로기이다. (Roger Griffin, *Fascism*(2000)) 파시즘은 민족을 위협하는 ‘병균’들을 지목하고, 이들을 절멸함으로써 민족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상정한다. 이때 파시즘의 폭력은 일종의 ‘창조적 파괴’로서 정당화된다. 그리고 파시즘적 지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간형, 이른바 ‘호모 파시스트’의 발명을 시도한다. 다음으로 연사께서는 카스 무데의 논의를 참조하여 극우의 분류를 제시한다. 극우파(Far Right)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는데, 그럼에도 민주주의 체제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진우파(Radical Right)로, 민주주의 체제까지도 부정하는 경우에는 극단우파(Extreme Right)로 분류된다.

그런데 현대의 극우정치는 과거 무솔리니나 히틀러의 ‘역사적 파시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 위에 놓여 있다. 신자유주의, 디지털 혁명, 인류세의 위기가 바로 그것인데, 세 문제는 물론 분리될 수 없고 서로 연동되어 작동하지만 그중 가장 근본적인 심급으로서 문제시되는 것은 단연 신자유주

의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각기 상이한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연사께서는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셨다. 우선 경제 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이다. 시장의 자유를 위한 탈규제, 민영화, 감세, 노조의 약화, 복지정책 후퇴 등으로 계열화되는 일군의 정책들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일종의 관점(현실을 보는 렌즈)으로서의 신자유주의이다. 모든 것의 경제화, 자기 자신의 기업화, 공동체의 파괴 등에 이르는, 일종의 신자유주의적 주체화의 차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요구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려는(insulate) 경제외적(메타경제적) 프레임으로서 신자유주의이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학자인 하이에크는 민주주의적 통치가 사회 정의에 대한 '무제한적 요구'를 통해 시장 질서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하이에크는 행위자들의 자유에 기반한 시장 질서가 평등에 대한 요구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시장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민주주의의 제약도 용인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민주주의적 통치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는/격리하는(encase) 프레임으로서 신자유주의는 정치의 몫을 축소하고 정치를 경제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된다.

이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보자. 현대의 극우를 파시즘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 우선 현대의 극우는 파시즘의 본 정의처럼 유기체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속 주체들은 스스로를 기업가적 주체로서 간주하여 자신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원자화된 개인이다. 극우 집회에 나온 2030남성들이 소수자들을 자신의 몫을 빼앗아 가는 '병균'으로 혐오하고 궁극적으로 절멸시키려는 것은 맞지만, 이들의 동기는 민족에 대한 광적인 헌신보다는 '공정'에 대한 왜곡된 믿음에 기반한다. 극우의 혐오 정치는 유기체로서 민족의 갱신을 추구하는 '창조적 파괴'보다는, 뚜렷한 비전을 결여한 채 자신의 불만을 배출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밖에도 현대의 극우를 파시즘으로 부르기를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많다.

그럼에도 연사께서는 현대 극우를 이해하는 데 파시즘 개념이 적절한지 아닌지 확답을 내리진 않으셨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명명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극우정치의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문제이다. 때로는 파시즘이나 혹은 새로 발명된 신종 파시즘,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 신자유주의 파시즘 등의 개념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중요

한 것은 해당 개념이 당면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이다. 필자는 현재 12·3 이후 탄핵찬성집회의 시민자유발언을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을 ‘파시스트’, ‘파쇼 무리’ 등으로 부르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이 분노를 반영한 멸칭 그 이상의 쓸모를 갖기 위해서는 도리어 그 개념이라는 도구 자체에 천착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극우에 대한 정확하고도 다층적인 이해를 통해 우리가 투쟁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광장에서 표출된 급진적인 정치적 상상력과 열망이 더 힘 있게 멀리 뻗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일차적 과제이다.

앞으로 있을 일곱 번의 강연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한국 우파의 역사, 냉전 이후 청년 극우의 계보, 기억과 극우정치, 극우의 헤게모니 전략, 극우 정치의 새로운 기술적 인프라, 글로벌 극우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앞으로의 강연들은 극우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함께 오래 연구를 해온 저자들일지라도 극우에 대한 정의나 방법론적 관점 등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 차이의 간섭 속에서 극우에 대한 우리의 사유가 증폭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뜻깊은 기획을 마련해 준 진실의 힘과 파시즘 연구팀에 감사드린다.



### 한국 극우의 역사적 맥락과 우리의 새로운 과제



황가현(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 졸업)

윤석열 탄핵 이후 벌써 두 차례의 선거가 치러졌다.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국민의 힘은 장미대선에서 선택받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그러나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합산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를 근소하게 앞지른 결과는 예사롭지 않은 징후로 다가왔는데, 6월 3일 진행된 제9회 지방선거에서 그 불길함은 기우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 났다. 계엄 이후 극우 개신교 집회의 연사로 활약한 이들은 보수 정당의 스피커로 탈바꿈했으며,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며 최초의 5선 서울시장이 탄생했다.

1987년과 2016~2017년에 이어 시민의 힘으로 독재를 막아낸 것이 벌써 세 번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자꾸만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광장이 뜨거워질 때마다 ‘국민’이라는 뭉툭한 이름으로 묶이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명해지고, 혹자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너무나도 반(反)민주주의적이라 대화의 가능성을 구할 길이 가로막힌 듯하다. 이 현상은 전 세계적인 우경화의 흐름 중 일부에 불과할까? 한국 사회가 특수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대체 어떤 종류의 위기일까?

〈극우의 힘, 민주주의의 미래〉 연속 강좌의 두 번째 시간은 ‘한국의 반동정치: 우파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역설’을 주제로 꾸려졌다. 연사인 양명지 교수(하와이대학교)는 최근 펴낸 저서 『Reactionary Politics in South Korea: Historical Legacies, Far-Right Intellectuals, and Political Mobilization(남한의 반동 정치: 역사적 유산과 극우 지식인, 그리고 정치적 동원)』(2025)을 바탕으로 유럽·북미 중심의 극우 연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국 극우의 역사적 맥락을 조명했다. 비교역사적 관점에 입각한 풍부한 이론적 검토와 연구자의 치열한 필드워크 경험을 통해, 한국의 극우 정치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자는 물론 그들의 재생산 및 세력화의 기제를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은 나라에서 이데올로기라는 것

양명지 교수가 한국 극우의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어휘는 ‘old wine in a new bottle’이다. 현대 극우 정치는 곧 냉전 시기의 유산인 **반공주의, 좌파에 대한 공포, 그리고 권위주의적 질서에 대한 향수**라는 ‘오래된 와인’을 **소셜 미디어 기술과 혐오의 정치**라는 ‘새로운 병’에 담은 꼴이라는 분석이다.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우익을 등치시키는 극우 내러티브는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와 ‘우익’의 기의는 북한과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로 얼룩졌다.

이처럼 한국의 극우를 사유할 때 남한 단독정부가 반공주의를 기틀로 삼음으로써 근대적인 국민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토양에서 형성된 ‘보수 헤게모니’와 양당제가 결합한 결과, 한국 정치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좌파’는 거의 없거나 그 존재감이 매우 미미해졌다. 정부의 시장 간섭 정도나 소득 재분배 정책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가려지는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 양당의 경제 정책은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북한에 대한 입장에 의존하여 좌우의 라벨링이 부여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우파, 보수, 극우를 경험적 수준에서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 -극우 인프라의 구축과 헤게모니 전략

실제로 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보는 보수의 스펙트럼을 한참 초과한 것이었다.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내란 지지 집회에 참여해 발언했고, 정당 지도부는 윤석열과 제때 단절하지 못하고 탄핵 판결을 지연시켰다. 재작년 겨울에 목격했듯 한국의 극우 정치는 정당과 사회운동이 연합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전국 규모의 기도회 및 집회를 주도하는 극우 개신교 집단, 레거시 미디어에 더해 핵심적인 정보 유통 창구로 부상한 뉴미디어 채널이 극우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잃어버린 10년’을 개탄하며 등장했던 뉴라이트(New Right)는 직접 풀뿌리 단체를 조직하고 역사 수정주의를 통해 극우 정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인프라의 결속력을 강화했다. 이처럼 헤게모니를 형성하고 진지전(war of position)을 구축하는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이탈리아 출신의 좌파 지식인,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에서 빌려온 것이다.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윤어게인’ 집회의 동원력은 극우적 인식론의 확산 및 정상화를 목표로 한 극우 정치 전략의 결실인 셈이다.

### -새로운 전략: 도둑맞은 차별과 여성혐오

반북·반공·빨갱이의 수사는 한국전쟁과 강력한 권위주의 독재 정권을 겪은 노년 세대에게 여전히 유력하다. 그러나 지지 기반을 세대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활용된 것이 바로 공정 담론과 안티 페미니즘이다. 대통령 후보의 SNS 계정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짜리 공약이 게시될 수 있다는 사실은, ‘혐오’가 지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유용한 전략이며, ‘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심각하게 결렬되어 있음을 방증했다. 더불어 청년 세대의 우경화는 비교적 남성에게서 극명하게 나타나지만,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나’라는 ‘무고한 개인’이 치러야 한다는 데 분노하는 이들은 젠더를 막론하고 증가하는 추세다.

억압받는 자들의 언어를 전유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구하는 전략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민주주의의 자장 안에서 납득 가능한 것으로 위치시킨다. 이렇듯 극우 정치는 단순히 ‘자유민주주의’를 참칭하며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생산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대신 간

신히 유지되고 있는 민주적 공동체 내부에서 극소수가 이미 가진 권력을 보존하고 증식하는 쪽으로, '살 만한 삶'의 범위와 규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치달을 것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목도하는 정치적 현상은 더 이상 좌우 스펙트럼만으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는 한국 사회의 현재를 진단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벡터이자 지배적 현실이다. 계급과 젠더를 가로지르는 청년세대의 우경화, 내란 정당의 득세, '부정선거'와 '재선거' 구호가 혼용되는 시위 현장……. 계엄을 건너 탄핵을 이뤄낸 지금-여기에서 요구되는 태도는 이들을 우발적으로 돌출한 '비정상'으로 치부하는 대신, 현실민주주의의 협소함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는 것이다. 극우는 분명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실체다. 그들의 계보를 추적하고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은 민주적 공동체를 더욱 민주화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다.

진실의 힘 X 「진후 극우의 트랜스내셔널 재검토」 공동연구팀 '극우' 연속강좌

**극우\*의 부상, 민주주의의 미래**

신정하기  
한국의  
미래

**한국의 반동정치**

우파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역설

양명지 교수 (하와이대)

- \* 한국의 극우와 반동정치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 냉전과 반공, 권위주의는 오늘의 민주주의와 어떻게 충돌하는가.
- \* 극우는 어떻게 대중을 동원하고, 그 전략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 '태극기'라는 이름으로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누구인가.

일시: 2026년 5월 27일(수) 저녁 7시  
장소: 모임공간 상연재(성공회빌딩 2층)

문의 진실의힘 02-741-6260 www.truthfoundation.or.kr

**REACTIONARY POLITICS IN SOUTH KOREA**

Historical Legacies, Far-Right Intellectuals, and Political Mobilization

**MYUNGJI YANG**

## [진실]

### 아들의 시간

진실의 힘 앞으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메일을 보내신 분은 자신을 방송작가라 소개하신 뒤, 진실의 힘이 출간한 『야만의 시간-반국가단체 만들기에 희생된 한통련의 50년』의 저자 김종철 기자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책 덕분에, 한민통의 역사와 그로 인해 가족들이 겪은 잔혹한 상처를 마주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연입니다.

-아버지(곽영우, 2020년 작고)는 1981년 군사정권 시절, 한민통(한통련) 활동을 한 일본의 친척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불법 연행과 고문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형제 간의 안부와 축의금조차 ‘공작금’으로 조작되었고, 이후 가족은 오랜 보안 담당 형사의 감시에 시달렸으며 사회적 낙인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모진 수감 생활의 후유증으로 출소 후에도 만성 간염을 얻어 오랜 기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어렵게 직장을 얻어도 석연찮은 이유로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었다 했습니다. 작가님의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가족의 일상과 평화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의 불행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나이가 된 지금은 민주화를 위해 싸운 큰아버지들과 가족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합니다. 특히 『야만의 시간』을 통해 한민통의 역사와 가족의 상처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아버지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한 맏한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한 아들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그저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쉰셋(한통련과 같은)이 되었습니다. 마흔넷의 나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나와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보려 고군분투하셨던, 그러나 세상의 벽에 가로막혀 끝내 가족들 앞에 고개 숙여야 했던 그때 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슴에 묻은 응어리는 풀어진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미안해 차마 꺼내지 못한 한(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뿐인 저의 아이가 아버지의 출소를 손꼽으며 기다렸던 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 집안의 찢긴 역사를 내 손으로 다시 써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리고 기자님의 책 『야만의 시간』은 그 결심에 거대한 용기와 불을 지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일어난 아들의 편지가 가슴을 울립니다. 이 땅 곳곳에 흘린 피해자들의 피눈물, 원통함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뭉클해집니다. 뜨거운 응원과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김종철 기자의 『야만의 시간』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김종철 작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아들은 다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뒤늦게서야 아버님의 흔적들을 찾고 있는데 참으로 눈물이 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보겠습니다.

진실을 찾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추모]

우석균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사진. 허 란

한평생 공공의료 확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신 우석균 선생님께서 2026년 6월7일 잠드셨습니다. 의사로서 지냈던 소신과 철학은 여러 인터뷰와 기사에 남아 있지만, 특히 성수의원 폐업 직 전까지 24년간 지역 노동자, 이주민, 장애인 등 다른 병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의료취약계층의 주치의로 살아온 삶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세상”을 강조하시며 누구보다 아픈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12·3 내란의 밤에는 국회로 달려가셨습니다. 병세가 깊어져 몸이 크게 쇠약해진 상황이었지만 불의가 일상이 되는 세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진실의 힘은 선생님께서 [12·3내란 시민기록 프로젝트]를 통해 남겨주신 말씀과 모습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인터뷰 당시 당시 선생님은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었지만, 국회로 향

했던 이유와 자신의 신념을 명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극우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 원인과 위험성,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2·3 계엄이 한국 극우 세력의 성장을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일시적인 일탈이나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12·3은 한국 극우의 본격적인 등장과 가능성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에 따라 한국 사회운동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수준이 결정될 것입니다.

극우를 미미한 존재로 여기거나, 잠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별다른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세계적인 현상일 뿐'이라거나 '한국은 다를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12·3 계엄은 향후 10년, 20년 동안 한국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는 상당히 우경화되었고 민주주의 역시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12월 3일 하루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독일에서도 경제공황 이후 극우 세력이 성장했고 결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초기에는 모두가 그것을 일시적인 소동 정도로 여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응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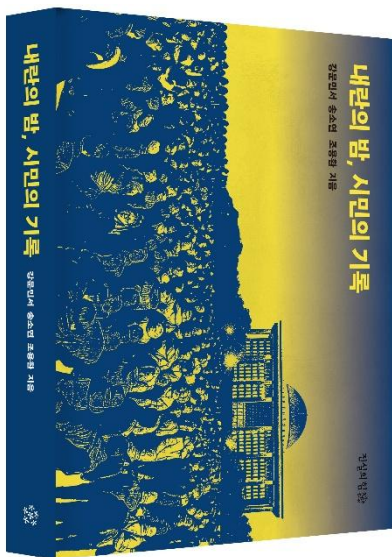
저는 12월 3일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이 한 번 위기를 막아냈다고 해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반극우 전선의 선두에 서야 하며, 그 전선을 사회 전체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날 거리로 나왔던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석균 선생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환자를 돌보는 의사였고,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시민이었으며,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실천가였습니다. 선생님이 남긴 경고와 당부 는 나날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은 지난하게 노력하여 만들어 가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 희망의 꽃으로 선생님의 고귀했던 삶을 추모합니다. 고이 잠드소서!

### [리뷰] 『내란의 밤, 시민의 기록』

#### 잉크로 새긴 우리 모두의 밤



#### 정민아(회사원)

흔히 역사를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하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실의 힘>에서 지난 12월 발간한 『내란의 밤, 시민의 기록』은 그 문법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이 책은 관찰자의 세련된 언어를 버리고, 그 밤,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각자의 공포와 용기를 확인해야 했던 시민들의 날것 그대로의 육성을 선택했다. 얼마 전 개봉한 12.3 관련 영화가 웅장한 음악과 긴박한 편집으로 관객을 끌

어 들었다면, 이 책은 그러한 소음을 걷어낸 후 남은 개개인의 떨리는 숨소리에 집중한다.

### - 이름 없는 이들의 옴니버스 연극

‘시민 기록물’로서 이 책의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시작된다. 아이를 재우다 TV 자막 보고 얼어붙었던 누군가의 거실,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에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던 한밤의 거리, 그리고 국회 담장 넘는 군화 소리를 들으며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던 어느 복도까지. 이 책은 정교하게 설계된 옴니버스 연극처럼, 각자의 공간에 있던 주인공들이 하나의 ‘광장’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313명의 서로 다른 시선이 겹치고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서사는 그 어떤 치밀한 각본보다 극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감동은 마지막 챕터인 ‘12.3 시민 313인이 전하는 한마디’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앞선 기록들이 그날의 긴박한 타임라인을 쫓았다면, 마지막에 배치된 이 짧고도 강렬한 고백들은 마치 연극의 마지막 무대에서 모든 배우가 나와 관객의 눈을 맞추며 건네는 독백과 같다. 313개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우리’라는 한 지점으로 수렴되는 구성의 절묘함. 그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다채로운 얼굴을 보여준다.

### - 숫자로 읽는 심장박동

이러한 감동과는 별개로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개인의 증언들 사이를 뚫고 나오는 정교한 통계와 도표들이었다. 자칫 파편화된 기억의 늪에 빠질 수 있는 독자에게 데이터는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이 되어준다. 여기서 통계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다. 몇 시에 시민들의 연결망이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는지, 어떤 단어들이 절박하게 공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들은 그날의 긴박함을 입체적으로 조각해 내는 도구가 된다. 텍스트가 심장의 온도를 전한다면, 도표는 그 숨결들이 만드는 거대한 파동의 궤적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다. 논리가 감성을 붙들고, 숫자가 감정을 증언하는 이 기묘하고도 완벽한 조화. 이러한 지점이 바로 이 책을 단순 증언집이 아닌 ‘입체적인 시민사’로 격상시키는 요소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의 힘>이 그간 버려온 집요한 경청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간첩조작 사건

에서부터 세월호까지, 권력의 언어를 걷어내고 오직 사람의 언어에만 몰입해 온 그들의 고집스러운 철학이 이 책에 엑기스처럼 녹아 있는 것이다. 국가 폭력의 그늘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며 일어난 이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지워진 목소리를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진실의 힘>이 보여준 이 집요한 기록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들이 지켜낸 이 목소리들이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 우리가 서로를 지켜냈던 그 아름답고도 치열했던 밤에 대한 가장 완벽한 헌사

잉크로 새긴 우리 모두의 밤. 『내란의 밤, 시민의 기록』은 묻는다. 당신은 그 밤 어디에 있었느냐고. 그리고 책장을 덮으며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그 밤의 주인공은 단상 위의 정치인이 아니라, 추위와 공포를 뚫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던 평범한 우리 모두였다는 것을. 숫자가 길을 내고 313명의 목소리가 대미를 장식하는 이 특별한 기록은, 우리가 서로를 지켜냈던 그 아름답고도 치열했던 밤에 대한 가장 완벽한 헌사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12.3 내란의 밤을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일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입법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나 그 밤 시민들의 용기와 행동을 기리려는 정부의 시도는 반갑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승리를 기리는 방식이 박제된 식순에 갇히는 대신, 이 책이 보여준 시민의 서사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풀어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기념일이 국가가 만든 ‘그릇’이라면, 이 책에 담긴 시민들의 육성은 그 안을 채울 가장 생생한 ‘영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날 거창한 기념식 대신 이 책을 바탕으로 광장 전체를 무대로 삼는 대규모 옴니버스 공연을 펼친다면 어떨까. 굳어버린 동상이나 비석 대신, 시민들이 직접 무대 위로 올라 그날의 공포와 환희를 다시 몸짓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풍경 말이다. 책 속의 증언들이 대사가 되고, 도표의 수치가 조명이 되어 광장을 비출 때, 12.3 내란의 밤은 비로소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가는 미래의 첫 문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원]

후원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강남규 강문민서 강서정 강영숙 강용주 강은영 강은옥 강창욱 강철섭 강형철 고동민 고민경 고제영  
곽경란 구민채 구종우 구혜임 권지윤 김경달 김경순 김경아 김경훈 김권호 김규태 김남섭 김민희  
김병선 김상범 김선정 김성일 김소연 김수지 김애상 김영희 김용규 김원영 김유심 김응수 김이슬  
김재명 김정인 김정현 김종환 김주영 김지은 김진용 김충례 김평호 김학주 김한수 김현무 김환균  
김효정 나백주 나원돈 노복미 명지원 모재연 문장렬 민원식 박경미 박계용 박근홍 박노성 박미옥  
박선이 박소희 박수빈 박수희 박영란 박옥희 박유리 박윤주 박장락 박정남 박종수 박주홍 박중석  
박현진 박형주 배소영 법무법인[유] 지평 서수정 서예령 설정희 소현숙 손현주 손현철 송소연  
송재혁 송지완 신경구 신동규 신동호 신상철 심재수 심찬섭 안경호 안명옥 양경희 양남훈 염은진  
오용관 오현석 우한울 우한철 유재우 유창진 유현미 유환주 윤양희 윤택진 윤혜영 이근행 이미정  
이선민 이선화 이성엽 이옥 이윤정 이은애 이재범 이정미 이정운 이진 이채훈 이춘희 이한솔 이현주  
이혜은 이효림 이희정 임순영 임인자 임혜영 장영아 장윤정 장은교 전원현 정길화 정남림 정대하  
정미연 정민지 정범진 정봉숙 정유진 정윤하 정의로 정종호 정주환 정혜경 정희선 조동찬 조은희  
조일준 조정에 주은진 채수미 채환규 최득록 최보람 최성진 최세정 최승남 최승진 최영아 최은아  
최진민 최진숙 하인숙 하지훈 한재희 한정열 한지연 한진영 허연숙 홍순성 홍지연 홍진아 황순규